불교문학 신작 못내 '우울'

작품성보다 사업성 '저울질'
출판사들 불황여파 긴축
탈고작품들 서랍신세

불교문학이 동맥경화에 걸렸다.

불교소설 창작에 몰두해 온 작가들의 신작들이 출판사 문전에도 가지 못하고 서랍에 갇혀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출판계의 불황이다. 요즘 같은 불황에 책을 냈다가 초판도 다 소화시키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어지간한 작가들의 작품은 받아 주질 않는다는 것. 거기다 불교를 주제로 하고 있다는 특수성도 작가들에게 불리한 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난해 '천년의 반지'를 발표했던 백금남씨는 조만간 소설 '유마'를 탈고한다. "작업이 이정도 진행되면 인연있는 출판사들로부터 섭외가 오기 마련인데 요즘은 전화 한 통 없습니다." 백씨는 여기저기 출판사들이 자신의 작업 과정을 알고 있으면서 연락이 오지 않는 이유를 잘 알고 있지만 "완성된 작품을 출판사와 독자라는 길로 순환시키지 못하는 현실은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오랜만에 불교희곡집을 낼 계획인 하유상씨도 계획을 한 겹 접어 둔 상태다. 12편의 희곡을 묶어 불교희곡집을 내려 했으나 선뜻 달려드는 출판사가 없다. "돈이 안되겠다 싶은 거죠. 요즘 같은 불황에 누가 돈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작품성이 평가되기보다 상업성이 먼저 저울질되는 폐단이 사라지지 않는 한 경기가 좋아져도 작가들의 기는 살아나기 어려울 겁니다."

97년 '삼국지', 98년 '태평양을 마당처럼' 등을 발표해 온 이광복씨도 불교성향의 작품을 꾀 모아 뒀지만 서랍에서 꺼내지 못하고 있다. 장편 1편과 중단편집 2권 분량의 작품들을 묶어 두고 있다. "한 마디로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많은 작가들이 자신의 열성을 바탕으로 꾸준히 작품을 쓰지만 발표할 길이 막혀 있는 현실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렇다고 잘 나가는 상업성 소설을 쓸 수도 없는 노릇이고, 여기저기 원고뭉치 싸들고 돌아다닐 수도 없어요. 사실 돌아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 걸로 알지만 출판은 안됩니다." 이광복씨의 경우 작품을 쓰고도 출판하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대학 다니는 자녀를 휴학시킬 수밖에 없었다.

서점가의 찬바람을 온 몸으로 맞고 있는 작가들 사이에서는 이 위기를 수행의 기회로 삼자는 주장도 있다. 윤후명씨는 지금 내 놓아도 실패하지 않을 자신 있는 작품들이 서랍에 쌓여 있다. 그러나 짐짓 출판을 하지 않는다. "기다리고 싶어서 묶어두고 있습니다. 서점가의 호황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절실히 출판을 하고 싶어질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선문답 같은 윤씨의 말에는 깊은 뜻이 있다.

이미 탈고된 작품일 지라도 곁에 두고 되새김질을 해가며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생길 때 성패를 가늠하지 말고 독자들 앞에 떳떳이 내 놓자는 것이다. "이런 기회에 작가적 태도를 점검하고 고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상업적인 계산보다는 좋은 작품에 목숨을 거는 작가의 양심을 존중하는 풍토가 이뤄져야 합니다. 세상이 거꾸로 간다고 작가들, 그 가운데서도 불교적 정신을 바탕으로 작품을 쓰는 작가들까지 거꾸로 달려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소설가는 좋은 소설을 쓰고 독자들이 읽을 때 문학은 존재의 가치를 얻는다. 서점가의 찬바람과 출판가의 냉정한 계산이 불교소설의 통로를 막아버린 문단의 동맥경화 증세. 대다수의 작가들이 이 암울한 환자복을 벗어 던질 날만 기다리며 작업실에 칩거한 채 새로운 작품을 구상하고 또 쓰고 있다. 작가이기 때문에.

임연태 기자(ytlim@buddhapia.com)

'한국불교문학연구' 펴낸 인권환교수

"불교문학연구 30년 결실 책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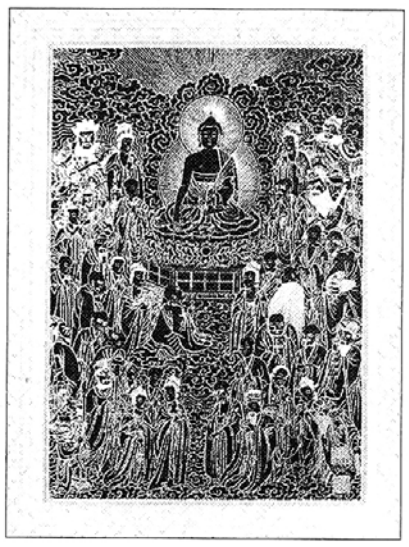
"대부분 대학의 국어국문학과에 '불교문학'이라는 학과목은 없습니다. 대학원 과정에서 '특별하게' 이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죠. 그러나 이제 불교문학 영역을 탐구한 결과물들이 석사학위 논문으로 적잖게 나오고 있으며 박사학위 논문도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1960년 '한용운 연구'로 석사학위를 83년에는 '고려시대불교시연구'로 박사학위를 받는 등 불교문학 연구에 몰입해 온 인권환교수(고려대)가 최근 '한국불교문학연구'를 펴냈다. 불교문학에 대한 정의가 일반화 되지 않은 시절부터 이 분야에 정열적으로 달려들었던 30년 세월의 열매다.

불교문학의 정의에서 시와 소설 등 장르별 역사와 정신의 통찰. 혜심, 일연을 거쳐 김시습 한용운으로 이어지는 불교문학작가에 대한 탐구. 불교문학서들에 대한 평가 등이 담겨 있는데 불교문학에 입문하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무엇보다 대학강단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불교문학이란 연구영역을 한국문학사에 새겨 넣은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이 연구서는 주목되고 있다.

인교수는 "연구를 하자면 수많은 경전과 선사들의 시 게송 등 무한한 마당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연구분야에도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겠지만 우리시대의 불교문학을 양산해 낼 작가들의 수적 질적 향상도 필요하다"고 오늘의 불교문학을 진단했다. 인교수는 앞으로 우리나라 불교전래 이후 현재까지의 불교문학사를 정리할 계획이다.

임연태 기자



무형문화재 박정자씨
'금니금속불화' 선보여

단청장 박정자씨(중요무형문화재48호)의 불화가 '티타늄 골드'라는 새로운 소재의 금니금속불화로 재창조돼 주목받고 있다.

티타늄은 골프채나 항공사업 등에 사용되는 금속으로 내구성과 보존성이 뛰어난게 특징. 평소 불화가 쉽게 훼손되거나 사라져 가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했던 김명환(54·불화연구소장)씨가 훼손 없이 후대에까지 물려 줄 수 있는 재료를 찾던 중 자체 개발한 것. 금니금속불화는 박씨의 불화를 스캔하고 이것을 다시 티타늄 골드에 컴퓨터로 출력해 재현한 것으로 금으로 그린 불화보다 면이 매끄럽고 색상도 양호하다.

4월중 경주서 열리는 '불교예술대전'에서 박씨의 '영산회상도'와 '관세음보살' 등 총 82점의 불화를 재현한 금니금속불화와 사방을 금니금속불화로 장식한 복전함 등이 전시된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김원출씨 음성공양
'천년자리 만년자리'

서라벌 예대 작곡과 졸업. 안마지압사 자격증 취득. 전립선암 말기 환자. 1년간의 기도와 완쾌….

기적 같은 삶을 살아온 김원출씨(69세)가 부처님께 음성공양을 올리는 마음으로 작곡해 부른 노래가 음반에 담겨졌다. '나의 찬불가 천년자리 만년자리'. 타이틀곡인 '천년자리 만년자리'를 비롯해 16곡이 담겼다. 경쾌한 리듬과 신심이 배어나는 가사가 어우러진 악곡들은 노래부른 사람의 기구한 삶이 일깨워 준 '귀의와 정진'의 서원을 아릿하게 전해준다.

새로 나온 음반

신세대용 불교가요
유승엽 '카르마' 발표

사오정이 불교가요로 신세대들을 만나러 왔다. "무슨 사오정 같은 소리냐"며 의아해 할지도 모르지만 사실이다.

오카리나 연주가로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는 유승엽씨가 신세대를 겨냥한 불교가요집 '카르마'를 냈다. 김지웅이 이끄는 보컬이 신나게 불러 넘기는 '사오정', 사물놀이와 굿거리 장단을 뒤섞은 가락으로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명산대찰' '염라대왕' 등의 노래들은 다분히 신세대들에게 새로운 흥미로 다가갈 것으로 보인다. 모두 10곡이 담겼다. 작사가 유화정씨가 가사를 만들었다.

전시소식

설봉스님 이웃돕기 도예전

4월 2일까지
강화문예회관

불우이웃을 돕기위한 설봉스님(무애원 원장)의 도예전이 27일부터 4월2일까지의 일정으로 강화문예회관 대강당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전시에서는 설봉스님 특유의 실험정신에서 완성된 백자류의 신작들을 만날 수 있다.

전시 개막식이 열린 27일에는 김홍국 남궁욱분 진송남씨등 불자가수들이 함께 한 축하공연도 펼쳐졌다. (032)932-5087

◇남궁산作 '생명 그리고 희망'.

'목판에 담은 생명의 향기'

남궁산 목판화전
4월말까지 백양사

산사에서 만나는 목판화. 단조로운 구상에 화려한 생상, 토속적인 정서가 물씬 풍겨나는 작품마다 새로운 삶의 향기를 뿜어낸다.

'생명 그리고 희망'을 주제로 하는 남궁산씨의 목판화전이 전남 장성 백양사 고불미술관에서 열린다. 4월1일부터 한 달간 열리는 이 전시는 백양사와 참사람결사운동 추진위원회가 초대전 형식으로 마련한 것. (0685)392-7502

돈에 불국사를 그렸어요

31일까지 '조페아트페어'

◇장시웅作 '불국사 설경'.

· 지폐에 그려진 그림들을 예술적 안목으로 보는 눈을 키우자.

한국조폐공사가 첫 번째로 '우리돈을 만드는 사람들'이란 주제의 조페아트페어 열고 있다. 25일부터 31일까지의 일정으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2층 전시실에서 열리는 이 전시회에서는 불국사 설경(장시웅 작) 석굴암 본존불 등을 만날 수 있다. (02)708-2095

"붓다가 살아 있다면 바로 이런 책을 썼을 것이다!"

⋮

쉽게 풀어본
호흡수련과 氣의 세계 2
전통호흡수련의 폐단을 극복하는 '자연호흡'의 세계

"100% 체험"

호흡수련, 이젠 '자연호흡'으로 한다!
언제까지 지식(止息)과 폐기(閉氣)로 자신의 몸에 무리를 줄 것인가? 들숨과 날숨만으로 이루어지는 자연호흡으로도 얼마든지 氣가 생성되고 강화된다! 20년 수련 체험을 바탕으로 쓴 氣 수련의 새로운 지침!
■ 값 10,000원 | 서점에 있습니다.

지은이 全永光
오랜 공직생활(전 해양수산부 서기관)을 하였으며, 여러 국가기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단전호흡을 강의하고 있다. '97년 제1회 국제기과학학술대회 초청연사로 氣수련의 에커니즘에 대해 발표한 바 있으며, 이 책의 전편인 《호흡수련과 氣의 세계》로 많은 수련인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입문에서 깨달음의 완성까지—
이 시대의 구도자 무산본각(無山本覺) 선생이 완벽하게 복원해낸 붓다 수행법의 완결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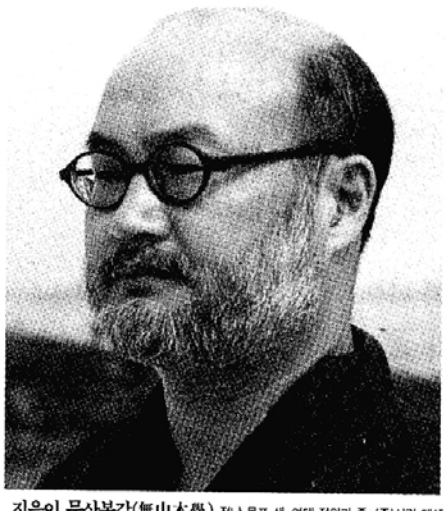
마음닦기
깨달음에 이르는 붓다의 수행법
無山本覺 지음
값 12,000원(부록CD 포함)

마음수련의 正道를 밝혀주는
모든 수행인들의 필독서!

· 2,600년 전 붓다가 깨달음에 이른 수행법을 완벽하게 재현해낸 본격 수행 지침서.
· 방대한 경전과 논서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구체적인 수행법들이 체계적으로 기술된 수행 필독서.
· 일실된 수행법들을 복원하고, 북방 대승불교권의 간화선(看話禪) 전통까지 포용한 본격적인 수련 매뉴얼.
· 여러 종교의 수행법, 현묘지도(玄妙之道), 도가 등의 수련법을 종합하고 해석·비판·용해하여 재구축한 완벽한 수행 시스템.
· 영적 계발을 위해 직접 몸으로 체험한 실천적인 테크닉의 기록.
· 인류 정신발전의 정화(精華)가 함축되어 있는 최고의 수행서.

■ 저자 초청 특강 및 워크샵
1999. 4. 3(토) 오후 2:30~5:30/참가비 6천원(선착순 입장)
■ 12시간 집중수련 워크샵
4. 10(토) 오후 3시~10시/11일(일) 오전 10시~오후 5시
참가비 5만원(선착순 마감)
주최: 정신세계원(747-7033/비원 옆 원사빌딩/안국역 종로3가역)

특별부록 ····· 釋定으로 이끌어주는 CD
무산본각 선생의 육성 가르침, 몸기반 하면 깨달음을 만난다!



지은이 무산본각(無山本覺) 전남 목포 생. 연대 정외과 졸. (주)신경 테헤란 지사장, 주(社) 이란 한국심사협의회장 역임. 이란-이라크 전쟁중 테헤란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품고 귀국하여 수행자가 됨. 영축총림 통도사 금강계단에서 보살계 받음.

이제는, 더이상,
《한단고기》를
부정할 수 없다!

단군조선은 78개의 속국을 거느린 대제국이었으며, 한반도는 삼한의 일부에 불과하였고, 고구려·백제·신라의 중심지는 현재의 중원 대륙에 있었다…!
한 고대사 연구가의 끈질긴 추적에 의해 마침내 긍지에 찬 민족사가 되살아난다—《실증 한단고기》.
《삼국사기》와 중국의 25사 등 방대한 문헌과 국내 최초로 소개되는 중국의 고지도들을 통해 단군조선 47대의 생생한 역사, 왜곡·축소된 고구려 역사의 실체를 낱낱이 고증하고, 백제와 신라의 대륙사까지 새롭게 밝힌다.
이일봉 지음
값 12,000원 | 서점에 있습니다.

實證 한단고기
단군조선과 고구려·백제·신라의 대륙역사

《한단고기》
임승국 주해|10,000원

정신세계사
전화 733-3135 | 팩스 739-8791